

2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황호덕



- (위) 「승천하는 청춘」의 앞표지
- (오른쪽 페이지 위 왼쪽부터) 김동환, 관동대지진 이후의 시가지 모습, 「국경의 밤」의 앞표지



왜 지금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가. 과거로부터. 역사를. 그 오랜 상처를.
 지난 감정을 온통 또다시.
 그것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이다.
 —Theresa Hak Kyung Cha, *Dictee*(1982) 중에서

1. 이웃의 정겨움, 이웃의 무서움 : 이웃의 재앙이란 없다

이웃의 재앙이란 어려운 주제이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게, 본디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씨[人之常情]이기에, 일찍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사단(四端)의 하나로 성현께서 말씀하신 바 되었다. 반면, 좀 안된 이야기지만 ‘강 건너 불구경’ 혹은 ‘남의 집 불구경 앓는 군자 없다’와 같은 속담 역시 일반의 인정세태(人情世態)를 반영하는 말들이라 하겠다. 더구나 이런

* **지은이** | **황호덕**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 및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일본 도쿄 대학 총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Irvine) 동아시아어문학과에서 수학·강의했고, 일본 조사이국제대학 인문학부 전임강사를 역임했다. 고석규비평문학상·한국비교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인문학의 정치성을 재탈환하기 위한 연속 기획 'What's up 총서'를 기획 편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벌레와 제국』, 『프랑켄 마르크스』, 『근대 내이션과 그 표상들』이 있으며, 『전쟁하는 신민, 식민지의 국민문화』를 공편하였다. 옮긴 책으로는 『근대어의 탄생과 한문』—한문맥과 근대일본(공역)이 있다.

** 이 글의 구상은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대회 「탈영토, 디아스포라의 인문학적 접근」(2011. 12. 17)에서 처음 개진되었다. 뒤이어 열린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워크숍 : 재해와 일본인」(2012. 4. 21)에서의 발표로 나름의 대체적 구도를 얻을 수 있었다. 구상, 발표, 수정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세를 졌으며, 덕분에 다소나마 정리된 글을 얻을 수 있었다. 사념을 글로 옮기게 해주신 박종명, 신인섭 선생님, 구상이 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조관자 선생님, 유익한 토론을 해주신 윤상인·이지형 선생님, 흥미로운 조언을 해주신 남상욱 선생님 외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다.

말이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인도주의(人道主義)라는 것이 사람의 사는 마련으로서의 갈 길이지만, 이를테면 세계 재앙이 닥치지만 않는다면 “높은 자리 좋은 구경(高見の見物, 수수방관)” 혹은 “불타는 로마 옆에서 바이올린 켜다”(fiddle while Rome is burning)는 식의 잔인한 심사를 지닌 것이 또한 인간이다. 인도주의는 그 얼마나 자주 ‘인권 군사주의’의 가면이 되어 왔는가. 상호부조와 보험 심리가 없다면 남에 대해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더구나 ‘집단’(the Collective)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익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인간 본성은 하나의 적나라한 정치적 심정으로 자리잡게 된다. 가장 쉬 악탈할 수 있는 대상은 역사적으로 늘 이웃이었고, 전쟁과 같은 재앙 역시 교통 공간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대개 이웃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만큼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동물도 달리 없다. 아니, 인간만큼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동물도 달리 없다. 비단 종(種) 간의 협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혹시 불거질지도 모를 적대를 회피하기 위해 인간은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되 방법적으로 사랑한다. 한 철학자의 말처럼 타자란 지옥이기에, 죽지 않을 만큼 — 죽지 않기 위해 인간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의 선의가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이웃만큼 가시적인 위협도 달리 없는 까닭이다. 친구이자 적이자 지옥인 이웃. 기독교에서 말하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정언명령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니 계명(誡命)일 터¹⁾이고, 그러니만큼 꿈이나 늑대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삼켜야만 할 썩과 마늘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적어도 십계명의 이할 오픈 썬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이니 이웃과 잘 지내는 중요함과 그 어려움이 가히 짐작이 간다.

‘이웃의 재난’에 관한 오늘의 질문을 이웃 사랑이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봐도 어려움은 마찬가지다. 이웃의 재앙을 내 몸에 일어난 일처럼 여기라거나, 재앙에 빠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그 자체로 아무 흠잡을 데 없는 절대적 윤

1)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 35~40).

리 같지만 실은 그렇지만도 않다. 대체 누가 이웃이며 어디까지가 이웃인가. 어떤 사랑, 얼마만큼의 사랑인가. 어떻게 낯선 자와 심지어 적까지 확장되는 타자를 내 고통과 책임의 범위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단 말인가. 한정이 있는 나의 사랑을 왜 진정한 동지·연인이 아니라 덤덤하거나 밍살스럽거나 그냥 그냥 지내면 되는 이웃에게 할애해야 한단 말인가. 그 이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자격 있는 자에게 미안한 일이 아닌가. 바리새인은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왔다 하지만, 견원(犬猿)의 세월을 부딪기며 보낸 경우라도 그러했을까. 정치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 주제는 윤리적 생활을 위한 안내역으로서보다는 사고의 난관(aporia)으로 존재하는 듯하다.

일찍이 프로이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는 계명을 일종의 수수께끼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 준수되기 힘든 율법, 예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이웃이 전혀 생소하거나 이웃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뿐인 사람에게는 당황스러운 요구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 이웃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일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의 적개심과 증오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솔직히 고백”하게 하는 이웃일 수도 있으며 “나를 비웃고 모욕하고 중상하고 자신의 우월한 힘을 과시하는 것을 개의치 않”던 그런 이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이트는 이 계명의 윤리적 긴박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Homo homini lupus)라는 정반대의 명제를 여기에 대치시켜 보기까지 한다.²⁾

실제로 아우슈비츠나 판타나모, 도쿄와 난징, 캄보디아나 보스니아라는 고유의 장소들을 떠올리면, 법권리와 함께 인간을 정지시켜 온 지난 세기의 허다한 예외상태의 출현이란 예기치 않은 재난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이웃을 상대로 만들어 낸 상시적 대재앙이 아니었나 싶다. 이웃의 재앙이 아니라, 이웃에 의해 인위적으로 생겨나는 ‘재앙’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문제일 수 있다. 과연 이웃과 재앙의 관계, 이웃의 재앙이라는 논제는 우리에게 정확히 주체성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의

2) 프로이트, 김석희 옮김, 『문명 속의 불만』(프로이트전집16), 열린책들, 1998, 296~300쪽.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수수께끼 같은 것³⁾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괴물로, 때로는 적으로 나타나는 이웃이 당한 재난에 대한 이야기에서 내가 강조해 두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우선 첫째, 이웃에서 벌어진 재앙이란 없다는 사실이다. 누구도 이 이웃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야기 한국사’나 ‘이야기 세계사’를 읽은 초등급부가 모다 알고 있듯 흉년과 재해, 전쟁과 같은 재앙은 상호 부조의 감동적 순간을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종종 이웃의 공간이 터리는 불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관동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대학살이 그러한 사례 중 하나일 것이다. 더구나 모순이 세계화하고, 인류 절멸의 방법을 신이 아니라 인간이 쥐고 있는 핵의 시대에는 이웃이 아니라 남의 모순도 원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재앙의 대명사가 되어 버린 ‘후쿠시마’라는 고유명을 생각해 보라). 둘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할 때, 이웃은 내 몸과의 유비, 혹은 자리바꿈을 통해서 짐작되는 그런 이웃이다. 이 사랑의 어려움은 이웃의 재앙을 내 몸에 일어난 재앙처럼 여겨보는 환치(換置)를 통해서 비로소 짐작되는 그런 것임을 차갑게 인정해야 한다. 요컨대 이웃의 문제란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일신의 안위로 긴박될 때에야 비로소 사고 가능해진다는 것이다(다시 한번, 잔인한 이야기지만, 3·11 후쿠시마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자리도 없지 않았을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명제와 ‘나란히/함께’ 이해되어야 함은 이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이기애, 우리는 불가피하게 이웃을 사랑‘해야만’ 한다. ‘사랑하라’는 당위 혹은 정언명령이면서 또한 ‘생짜 정치’(real politics)적 요구이기도 하다. 적과 동지를 나누는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면, 또 사랑과 윤리가 신학적인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동시에 신학적인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증오 사이에는 있어도 보이지 않는 신의 허만이 놓여 있다. 공포는 평범한 인간을 수용소의 안내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일종의 범주적 명령의 실례로서 존재하며, 우리는 ‘수용소’를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3) 케너스 레이너드·에릭 L. 샌트너·슬라보예 지젝, 『이웃』, 정혁현 옮김, 도서출판B, 2010, 13쪽.

윤리적으로 또 정치와 공리상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정언명령의 어려움처럼 이 명령도 현실에서는 잘 실현되지는 않는다. 이웃을 보호해 죽이는 수용소, 이웃을 가두어 지키는 식민지처럼 이 사랑은 역사적으로 잔인한 형태로 실현되곤 했다(일시동인—視同仁과 같은 잔인한 정언 명령을 떠올려 보라). 때때로 시인들은 이 이웃 살해의 재앙을 노래했다. 아니 절규했다. 위폐(圍閉)의 체험을 증언해야 하는 자, 죄 없는 죽음을 임종한 자로서 전승의 의무를 부여받은 자들이 있다. 파울 첼란이나 프리모 레비 같은 이들이 아마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말하자면 이웃들로부터 이미 한 번 살해당한 자, 즉 이웃이 아닌 이교도로 간주되어 살아 있는 시체들로 취급된 자들이 겨우 입을 열 때, 나오는 노래도 있는 것이다. 이 노래는 일종의 비명(悲鳴)인데, 한국문학사에서 그러한 이웃 사랑, 이웃 적대, 비명의 사례를 살펴 보는 일로 오늘의 논제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이어나가 보려 한다.

식민지 작가 김사량이 벌레나 돼지나 이슬람교도(≠Muselmann≠Muslim)라 불렀던 인간들이 어떻게 재앙 속에서 단번에 이웃에서 적으로 선언되는지, 또 거기서 다시 굴욕과 공포로 인해 절대적인 무기력 상태의 무젤만(der Muselmann)⁴⁾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이웃을 방법적으로 또 정치신학적으로 ‘사랑해야’ 함을 이해하는 데 얼마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지금 그것을 불러일으켜 잊혀진 역사를 망각 속에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 “말과 이미지 속에서 또 다른 말과 이미지를 조각조각 끄집어 내어, 잊혀진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⁵⁾ 불편하겠지만, 이웃이 적으로 죽은 저 살육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자.

4) 수용소 수용자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상을 증언하며 프리모 레비는 이들이 수용소의 언어로 ‘무젤만’(der Muselmann)이라 불렸다고 기술한다. 조르조 아감벤은 이성과 본능이 소멸됨으로써 자연적인 상태에서부터도 퇴각해 버린 무젤만은 사실과 법, 생명과 규범, 자연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구별 불가능성 속에서 움직인다고 말한다.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347~348쪽.

5) 차학경(Theresa Hak Kyung Cha), 김경년 옮김, 『딕테』(Dictee), 어문각, 2004, 43쪽.

2. 현해탄과 북국(北國) : 한국근대문학의 두 장소, 비명(悲鳴)과 노래

‘근대한국 최초의 서사시’로 일컬어지는 「국경의 밤」(1925. 3. 20)의 명성에 비해 볼 때, 작가 김동환이 같은 해인 1925년 12월에 출간한 또 한 권의 ‘장편서사시’ 「승천하는 청춘」(1925. 12)에 대한 그간의 무관심은 다소 놀랍기까지 하다.⁶⁾ 「국경의 밤」의 명성이라고는 했지만, 실로 이 작품이 경역 내 이민족으로서 대개 ‘재가승’(在家僧)이라 불렸던 여진족의 후예 여성과 조선인 지식인 남성의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주조음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번 간과되거나 부차적인 수준에 서만 언급되어 왔다는 점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의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니 이 여성은 조선인의 민족적 수난을 대표/대리하는 존재로까지 매번 언급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승천하는 청춘」이 관동대지진을 그것이 발생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제로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는 점, 또 이 작품이 근대 한국 최초로 수용소 체험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적이나 본격적 접근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의문거리다.⁷⁾

자연에 의해 법이 정지되는 ‘재난’이라는 비상사태, 또 정치적 재앙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성되는 수용소라는 예외상태에 관한 현대사상의 허다한 이디엄들, 최근 20여 년간 주류화된 식민지 문학 연구의 그물망에 김동환의 두 작품, 나아가 이기영, 이상화, 김영랑, 박용철, 채만식, 유치진, 김소월, 윤극영, 양주동, 이장희, 유엽, 송석하와 같은 관동대지진 경험 문인·지식인들의 관련 작품들⁸⁾이 절반 걸려든 바 없다는 사실은 꽤나 놀랍다면 놀라운 일처럼 느껴진다.

6) 사용한 텍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하의 인용에서는 장(章) 혹은 쪽수만 표시한다. 김동환, 「국경의 밤」, 범우사, 1995; 김동환, 「승천하는 청춘」, 신문학사, 1925.

7) 문학기행적 형식으로 김동환의 「승천하는 청춘」과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학살 문제를 연결지어 논한 글이 나와 있다. 김응교, 「1923년 9월 1일, 토오쿄오- 토오쿄오와 한국인 작가(1)」,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춘향이 살던 집에서, 구보씨 걷던 길까지」, 창비, 2005.

8) 예컨대, 우선 이기영의 「두만강」, 이상화, 「진재의 추억」, 「도쿄에서」, 「통곡」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이기영은 해방 후, 「두만강」(제3부/상)에서 자신이 겪은 대지진과 학살의 상황을 서사화한 바 있다. 김동환의 두 서사시집과 같다 할 수 없으나, 이 대목에서도 두만강이라는 국경과 도쿄 내에 형성된 내적 국경의 문제가 겹쳐서 나타난다. 이들 대부분은 관동대지진 후 귀국했다. 비록 식민지 하 검열 속에서 제한적으로밖에 언급될 수 없었지만, 대지진 및 조선인 학살과 이들 문학의 관련에 대한 연구는 한국근대문학사를 이해하는 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이 같은 해에 연이어 나온 두 권의 장편 서사시집인 만큼, 필자로서는 당연히 두 시집이 그 주제의식이나 시적 발상의 측면에서 상당한 연속성이 있으리라는 추측 하에 시집을 읽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양자가 모두 ‘이웃’ 혹은 ‘이웃민족/이웃나라’로의 이동·이주나 내적 국경의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종의 이웃 간 적대 혹은 살해라는 현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니까 환대와 우정/사랑의 대상인 이웃이면서,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도 되는 적이자 원수이기도 한 대상이 이들 시에는 복수(複數)의 민족들로 표현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내가 휩싸이고 만 질문은 이런 것이었다. 과연 (근대에 있어/어쩌면 항상) 노래라는 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수많은 일국 문학사들이 전제하는 것처럼 노래란 애초에 공동체의 제의나 노동으로부터,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쪽에서 발생하는 것일까. 과연 주변과 함께 충만한 삶의 기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가가 노래의 기원인 것일까. 혹 밖으로부터, 이방인의 존재와 함께 오는 것이 노래인 것은 아닐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떠돌아야말로 노래하거나, 노래하게 하는 자인 것은 아닐까. 이방인의, 이방인이 되어 버린 자의 한스러움이야말로 시의 근원이 아닐까. 아니, 재앙을 피해 길을 나선 떠돌아야말로 노래를 전승하는 자가 아닐까. 속절없는 물음들이지만 오늘의 주제와 무관한 질문만은 아닐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게 생각해 보자 내게는 하나의 인상 깊은 ‘일본문학사’가 떠올랐는데,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가 나오던 언저리에 발표된 오리구치 시노부(折口信夫)의 『국문학의 발생』(1927)이라는 책이 바로 그것이었다. 알다시피 오리구치가 『국문학의 발생』에서 이야기한 노래의 발생과 전파는 공동체 내부자의 몫이 아니라 異人, 稀客이라고 쓰고 ‘마레비토’(まれびと)라 읽는 이방인에 의한 것이었다. 내가 읽기로는 오리구치는 언어 공동체 의식의 기원 혹은 국가와 문학에 대한 자의식의 창생이 발원하는 순간을 ‘마레비토’(まれびと)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듯 보였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민속학적/인류학적 탐구 끝에, 오히려 그러한 공동성의 근원을 외부의 존재에 대한 원형적 이야기로부터 찾아내야 했던 그의 난관이 어쩌면 한국근대문학의 한 원점에도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라

고 생각해 보는 일은 적어도 내게는 흥미로운 가설처럼 보였다.

즉, ‘이방인 = 이인(異人) = 신(神)’ 혹은 ‘적(敵)의 도래 지점이야말로 노래와 함께 적대가, 노래와 함께 환대가 발생하는 순간인 것이다. 드물게 오는 손님, ‘나그네’ 정도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마레비토는 오리구치에게 일종의 문학적·종교적·정치적 원체험으로서 인지된다. 그에게 있어서, ‘마레’(稀)는 ‘극히 드문’(rare), 혹은 ‘유일하고 존귀한’의 의미로 해석되며, ‘히토’(人)는 인간의 형상을 한 신의 의미로 풀이된다. 그런데 어떻든 그는 수다한 경우 마치 걸인처럼 나타나고, 한 공동체에 의해 (환대되거나 또는) 적대되어 죽임을 당한다. 그런 한에서 우선 마레비토는 “인간의 모습으로 내방하여 온 신”을 뜻하며 “이방인(まればいと)의 본원적 모습을 말하자면, 그것은 신이다.”⁹⁾ 바다 저편의 이향(異郷, 常世)으로부터 내방하여, 인간들에게 축복을 주고 가는 신으로서의 마레비토(珍客, 稀人, 異人). 어떤 의미에서 마레비토의 내방이야말로, 신을 영접하는 의식으로서의 향연, 그 영접의 기록으로서의 민간 전승, 그 전승의 방식으로서의 문학의 기원인 셈이다. 그리고 마레비토를 둘러싼 향연과 문학, 그러니까 ‘신과 노는 노래’(神遊の歌)의 기억과 그 반복이야말로 공동체를 묶는 계기가 된다. “향연과 문학과의 관계는, 단순히 문학이 향연으로부터 생겨났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향연에서 발생한 문학이 다시 향연에서 불리우고, 말해지고 노래되는 것이다. (……) (즉) 성질이 아득히 멀고, 감정도 서로 막혀 있는 듯 보이는 향연들이 하나의 문학에 의해 연결되는 수가 있다, 는 말이 된다.”¹⁰⁾

하지만 이런 이방으로부터의 존재는 흔히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격, 이를테면 만복(滿腹)에 이르러 죽게 하는 식공(食攻)이나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새로운 노래/이야기에의 강요 속에서 살의 가득한 적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월경자는 하나의 공동체에 속한 ‘인간’들에게 절

9) 折口信夫, 『國文學の發生(第三稿)』, 『古代研究』(國文學篇), 『折口信夫全集 1』, 中央公論社, 1975(1993), 5쪽. 이방인/외국인과 문학의 관련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출처를 참고. 황호덕, 『넘은 것이 아니다 — 국경과 문학』, 『프랑켄 마르크스』, 민음사, 2008. 이하 이 장의 논의는 이 글에서 제시한 구도로부터 진전시킨 것이다.

10) 折口信夫, 『異人と文學と』, 『折口信夫全集 7』, 中央公論社, 1976(1990), 303쪽.

대적 타자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흔히 신에 가까운 존재, 신이면서도 동시에 동물인 존재, 유대나 등기(登記) 안에 존재하지 않기에 합의에 의해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곤 한다. 요컨대 손님(hôte)처럼 또는 적(敵)처럼 맞아진 이방인(hostis), 그래서 환대(hospitalité), 적대(hostilité), 아니 환대-적대(hostipitalité)의 대상이자 증거¹¹⁾로 남은 이 월경자, 나그네(珍客/稀客/異人)야말로 문학 이야기, 시, 노래의 근원에 자리잡은 근원적 존재라 해야 할지 모른다. 인간 아닌 자, 즉 신이거나 비인(非人)인 이 존재야말로 노래의 발생 혹은 전승과 깊히 관련된 것이 아닐까. 더구나 이 이방인들이 하나가 아닌 여럿, 나아가 집단이 될 때 이는 그 자체로 살육해도 죄가 되지 않는 ‘적’의 등장으로 간주된다.

오랫동안 한국근대문학의 상상력을 구동한 가장 중요한 원천은 ‘현해탄 콤플렉스’(김윤식)라는 유명한 명제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 소위 일본유학 혹은 일본유랑의 문제인데, 이는 김기림이 이상(李箱) 문학의 원충동으로 설명한 바 있는 ‘매혹’을 향해 바다를 건너는 위태로운 나비로 표상되곤 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허다한 유민시, 유민서사(流民敍事)의 존재가 증명하는 ‘현실’이 존재했던 것인데, 북으로의 월경은 민족수난서사의 중요한 소재로서 이 시대의 문학을 일종의 ‘추방 이야기’로 이끌리게 했다. 그렇다고 할 때, 김동환의 북국(北國)의 비극 「국경의 밤」과 남방 현해탄의 비극 「승천하는 청춘」이라는 한 쌍의 작품들 이야말로 한국근대문학사에 있어서의 이웃의 문제, 이방인의 문제, 재앙 혹은 재난의 상황에 관한 시적 대응을 이해하는 매우 특징적인 한 마디를 구성해 줄 수 있을는지 모른다. 「국경의 밤」에서 두만강을 넘었다 죽어진 재가승 순이 남편을 보는 그 ‘언문하는 선비’란 어쩌면 꿈을 안고 현해탄을 건넜다가는 관동대지진과 조선인학살, 연이은 수용소 생활을 경험하고 지칠 대로 지쳐 버린 「승천하는 청춘」의 바로 그 사람인 것이 아닐까(실제로 이 두 작품은 일종의 연작이다. 「승천하는 청춘」에서는 그리운 고향의 세목으로 「국경의 밤」의 두 주인공 병남과 순이라는 이름

11) Hostis는 라틴어에서 손님(hôte)과 적 혹은 원수(怨讐)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 손님과 적 사이에서 분열하는 이방인에 대한 라틴어적 파생물에 대하여, 자크 데리다·안 뒤푸르망텔, 남수인 옮김, 『환대에 대하여』, 동문선, 2004, 84쪽. 'hostipitalité'(환대-적대)는 데리다의 조어(造語).

이 등장한다[102쪽]).

노래는 어디에서 오는가. 시는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노래하는가. 누가 노래하게 하는가. 혹 공동체의 저 바깥 혹은 경계, 그러니까 ‘재앙’ 중의 ‘재앙’의 경험 혹은 ‘내쫓긴 자’ ‘감히거나 추방된 자’에 대한/엮힌 경험이야말로 시의 (한) 근원인 것이 아닐까. 누가 노래하는가. 밖을 보아 버린 채 퇴각한 자이다. 누가 무엇이 노래하게 하는가. 안에 있는 밖, 경계에 선 자, 내쫓겼으나 여전히 붙들려 있는 자의 비극적 삶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

3. 남도(南島)의 동일률(同一律)과 북국(北國)의 동정률(同情律) : 인류학과 시학 사이

일본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구성에서 근원적 상상력을 제공한 것으로 이야기되는 소위 ‘일국민속학’이 이른바 일본 본토의 과거로서의 오키나와, 즉 ‘남도(南島)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축된 것이라는 주장은 오늘날 매우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는 생각 중 하나이다. 남도 이데올로기와 민속학, 예컨대 야나기타 구니오(柳田國男)나 오리구치 시노부의 오키나와는 소위 본토에서 ‘사라진 것’ ‘그리워 해야 마땅한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를 이방으로 보기보다는 ‘안에 있는 관찰자’로서 본다고 믿었고, 거기서 오키나와는 이미 잃어버리고 변해 버린 야마토의 고어나 서구문명에 의해 사멸되어 가는 일본의 근원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¹²⁾ 본국 안의 이방에 대한 탐구를 민간전승 혹은 향토연구라 느끼고, 일본민족이라는 현재적 요청을 과거화된 공간으로부터 찾아내는 이 자기구성의 논리는, 타자에 관한 민족지 역시 결국 자기민족지로 귀착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흥미로운 것은 김동환의 「국경의 밤」이 바로 이와 같은 오직 자기자신으로서의 이방의 발견과 자기동일성 확인의 방도를 저 함경북도 경성(鏡城)이라는 오랜 국경지대, 즉 ‘북국’(北國)의 옛날과 재가승(在家僧) 가족의 삶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서사시의 제1부 제1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12) 고야스 노부쿠니, 김석근 옮김, 『일본근대사상비판』, 역사비평사, 2007, 32쪽. 보다 전면적인 검토로는 村井紀, 『南島イデオロギ-の発生 : 柳田國男と植民地主義』, 岩波書店, 2004.

아하, 무사히 건넜을까,
이 한밤에 남편은
두만강을 탈없이 건넜을까?

저리 국경 강안(江岸)을 경비하는
외투(外套) 쓴 검은 순사(巡査)가
왔다 - 갔다 -
오르명 내리명 분주히 하는데
발각도 안되고 무사히 건넜을까?”

소금실이 밀수출(密輸出) 마차를 띄워 놓고
밤새 가며 속태우는 젊은 아낙네,
물레 젖던 손도 맥이 풀려서
‘파!’하고 붙는 어유(魚油) 등잔만 바라본다.
북국(北國)의 겨울 밤은 차차 깊어 가는데.

국경의 밤 겨울, 한 청년이 소금실이 밀수출꾼의 아내 순이의 집을 찾아든다.
이미 8년 전에 남편의 아내가 되어 버린 순이는 재가승에 대한 관습에 따라 마음에
도 없는 ‘집중’(머리를 짧게 깎은 여진족에게 붙였던 별명)의 가문으로 시집을 가야
만 했던, “불쌍하게 피어난 운명의 꽃”과 같은 존재다. 그녀의 사랑을 다시금 갈구
하는 ‘언문하는 선비’는 이렇게 뒤늦은 고백을 한다.

도회의 매연에서 사형을 받은 자이오,
문명에서 환락에서 추방되구요,
쇠마치, 기계, 착가(捉枷, 족쇄—인용자), 기아, 동사
인혈을, 인육을 마시는 곳에서 폐병균이 유리하는 공기 속에서 겨우 도망하여
온 자이오.

몰락하게 된 문명에서
 일광을 얻으려 공기를 얻으려,
 그리고 매춘부의 부란한 고기에서, 아편에서 빨간 술에서 명예에서 이욕에서
 겨우 빠져 나왔소,
 옛날의 두만강가이 그리워서
 당신의 노래가 듣고 싶어서. (제58장)

“인혈을, 인육을 마시는 곳”, 즉 “몰락하게 된 문명”에서 도망 온 자가 “도회의 매연”에서 빠져나와 얻으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청년이 문명의 환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뒤에도 결코 잊지 못했던 단 한 가지, 바로 처녀(순이) ‘뮤즈’의 노래다. “당신의 노래가 듣고 싶”은 것. 그러니까 이 이민족 처녀는 노래하게 하는 자인 것이다. 스스로는 노래할 수 없지만, 시인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는 낭만주의 속의 여성¹³⁾은 시인으로 하여금 온갖 상처와 무의식을 털어 놓도록 만든다.

이 북국의 시인, 나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잃은 청년은 피식민자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식민지 안의 오랜 피지배자-북국 재가승의 삶으로부터 찾아내고 거기서 “일광을 얻고, 공기를 얻으려” 한다. 북국의 이방인에 동조하는 심퍼사이저는 카프문학의 심퍼사이저이기도 했는데, 이 시인은 어떤 의미에서 ‘국경’ 안의 이방인을 통해, 그 이방인의 처지에 동화되는, 적어도 동정/동조하는 과정을 통한 자기민족지로서의 민족의 노래-서사시를 구성해 내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 일본 민속학의 자기동일성 구축과 조선인 피식민자(들)의 동정(同情)은 모두 “안으로부터의 관찰”이라는 민족/민족이라는 이름 하의 인류학적 시선에 의해 구성되고 있었던 셈이다. 물론 그 사이의 단애(斷崖)는 깊고 넓다. 전자가 거기서 민족의 과거와 원천을 발견하며 일종의 노스탤지어를 느끼고 있다면, 후자는 거기서 민족의 현재와 운명을 찾아내고는 절규한다. 그러니까 김동환은

13) Friedrich A. Kittler, *Gramophone, Film, Typewrit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9, p. 167.

여기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적어도 방법적으로 ‘이방인’이 되어 보는 일을 통해 실험해 본 셈이 된다.¹⁴⁾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재가승의 따님” 순이가 스스로를 과거, 현재, 미래 모두에서 ‘산송장’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 여보 순이! 재가승의 따님,/ 당신이 없다면 8년 후도 없고요, 세상도 없고요”라고 말하는 청년에게 처녀는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도 남편의 가슴에 묻힌 산송장 / 흙으로 돌아간대도 가산(家山)에 묻히는 송장 / 재가승의 따님은 위낙 송장이랍니다!”(제58장), 왜냐하면, 이 “다른 백성하고 혼사도 못하고 마음대로 옮겨 살지도 못”(제29장)하는 재가승 — “함경도에 윤관이 들어오기 전,/ 북관의 육진(六鎭) 벌을 유목(遊牧)하고 다니던 일족”(제30장)들은 중 아년 중이 되도록 강요됨으로써, 살아 있음과 관련된 어떤 권리도 정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이방인 재가승들의 운명에 의탁해 노래된 조선민족의 처지는 ‘산송장’, 즉 언데드(undead) 혹은 리빙 데드(living dead)라 표현된다. 왜냐하면 이들 재가승들로서는 법역(法域) 내의 예외상태, 즉 인위적으로 구성된 법 밖의 공간(家山)에 붙들리듯 남아 있는 존재인 까닭이다. 「국경의 밤」 자체가 법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위낙 송장’인 존재로부터 스스로의 운명을 재발견하는 이야기인 셈이다.

그리고 이 ‘산송장’이라는 비유는 관동대지진 후의 수용소 경험을 다룬 「승천하는 청춘」을 지배하는 언어이기도 하다. 「승천하는 청춘」에서 영어(圜圖)된 조선인의 운명은 생번(生蕃, 타이완 원주민을 이르는 일본어)에서 산주검으로, 거기서 다시 생령(生靈)으로 이행한다. 야만인에서, 영(靈) 없이 살아만 있는 자로, 혹은 살아 있는 유령(生靈)으로 옮겨 가는 수용소의 조선인들로부터 김동환은 조선인, 나아가 피식민자를 포함한 모든 추방된 자=밖에 붙들린 자의 운명을 발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위험한 생번으로 취급되어 간혀 버린 채 ‘산주검’으로

14) 물론 여기서 이인(異人)과 이방인 혹은 이국인의 의미는 같지 않다. 여진족 여성에게 언문하는 선비는 ‘이인’에 가까울지 모른다. 또한 선비를 비롯한 조선인에게 여진족 여성은 ‘이국인’에 가까운 존재일지 모른다. 낯선 자의 의미가 이처럼 같지 않음에도 스스로의 처지를 여진족의 운명에 투사하는 관점이야말로 일종의 기묘한 전이(轉移)일지 모른다. 이 장편서사시에서 조선인 남성의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은 겹쳐서 나타난다.

떨어진 자가, 살려 해도 살 수 없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생령(生靈)을 임중한 자가, 저 '산송장'의 목소리를 듣는 일, 이것이야말로 두 서사시집의 연작성(連作性)의 원리가 아닐까.

4. 수송소시(Camp-Poem) : 이방인의 생명, 생번(生蕃)에서 생령(生靈)까지

독립선언과 소요사태론이 교차했던 3·1운동은 하나의 영토 안에 두 개의 주권이 경합했던 순간이라는 의미에서, 일종의 내전 상태를 연출했다. 그리고 그 직후인 1919년 8월, 정국 수습을 위해 조선총독에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미즈노 렌타로(水野鍊太郎)를 정무총감으로 삼아 함께 남대문 역에 도착한다. 미즈노는 남대문 역에서 강우규 의사의 폭탄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 살아 남았고¹⁵⁾, 후에 식민본국의 내상(內相)이 된다. 그가 관동대지진 하의 계엄령 발동을 통해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의 내전상태—일방적 살육이었지만, 결코 그 살육의 상황 하에서는 죄가 되지 않았던 집단 학살—를 획책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미즈노 렌타로와 유언비어를 함께 만들어 유포한 경무총감 아카이케 아쓰시(赤池濃)는 3·1운동의 뒷수습 역(役)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 겸 경무국장을 지낸 사람이었는데, 지진 발생 직후 내무대신 미즈노 렌타로에게 계엄령을 요청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¹⁶⁾ 3·1운동의 열기와 그 후의 분위기를 겪은 미즈

15) 미즈노의 사적 원한, 공포와 관동대지진 때의 계엄령 발동, 조선인 학살을 연결짓는 생각은 다분히 심정적인 한편, 자연스럽고도 일리가 있는 추측인 듯하다. 예컨대 다음의 사례를 보라. "미즈노는 사이토 조선 총독이 경성으로 부임할 당시 정무총감으로 같이 부임해 남대문 역에서 강우규 의사의 폭탄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다. 다행히 자신은 무사했지만 그때 받은 충격과 원한이 매우 깊어 이를 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내무대신이 된 그는 조선인에 대한 원한을 풀기 위해 열도당도 않은 '조선인 폭동설'을 꾸며낸 것이었다. 이것을 그대로 믿는 일본인들은 닥치는 대로 조선 사람을 살상, 희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조용만, 『京城野話』, 도서출판 창, 1992, 115쪽).

16) 大江志乃夫, 『戒嚴令』, 岩波新書, 1978; 松尾章一, 『關東大震災と戒嚴令』, 吉川弘文館, 2003. 계엄령 제14조의 '자의적인 확대해석' 등을 지적한 두 책은 공히 3·1운동 직후의 분위기를 경험한 이들의 공포와 적대를 대지진 후의 계엄령과 그에 이은 학살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사소한 것이지만 마쓰오 쇼이치(松尾章一)는 위 책에서 미즈노 렌타로가 '3·1조선독립운동 때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었다고 적고 있으나, 미즈노의 부임은 '운동' 발발 당사가 아니라 그 후인 1919년 8월 12일이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케 아쓰시의 경우 1919년 8월 20일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에 부임하여 9월 20일 경무국이 설치되면서 경무국장으로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 미즈노 렌타로, 아카이케 아쓰시 등의 지진 '수습'과 학살 정국 주도(적어도 방조)는 이 3·1운동의 봉기에 대한 체험과의 직접적인 인과 관계보다는, 봉기

노와 아카이케가 조선인에 대한 공포로 인해 유언비어를 만들었고, 경무국장 고토 후미오(後藤文夫)가 이를 연락병을 통해 후나바시(船橋) 해군송신소에 보냄으로써 전국으로 퍼졌다는 설이 정설화되어 있다.¹⁷⁾

일종의 내전으로서의 3·1운동과 내전의 연속으로서의 관동대지진이라는 역사적 구도를 설정해 봄직한 이유이다. 과연 「승천하는 청춘」에는 온갖 전쟁에 관한 비유들이 가득하다. 이를테면 식량의 도착 소식조차 “전시공채를 모으는 名女優”의 소리에 탁의될 정도인 것이다. 더구나 주무대가 되는 ‘수용소’(camp)라는 시적 배경 역시 과거 독일군 포로가 수용되었던 장소인 나라시노(習志野)이재민 수용소, 저 ‘포로수용소’이다.

「국경의 밤」이 간행된 후 9개월만에 출간된 이 시집은 총 제7부 61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집 전체가 “長篇敍事詩/ 巴人作”이라는 표지 아래 단 한 편의 서사시로 묶여 있다.¹⁸⁾ 작가의 말에 해당하는 네모 칸의 속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일월이 걸어 갈 때
 자욱자욱 재를 뿌린다
 그 잿속에 모든 것이 파묻힌다——미인도, 황금도, 온갖 문명도, 역사도 속절없이
 그러나 오직 하나
 青春의 가슴 우로 피어 오르는 『아침의 노래』만은
 어찌지 못한 채 고이고이 끼쳐 둔다.¹⁹⁾

의 사후 처리를 경험하면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격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각인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3·1운동의 진압과 처리 과정과 관동대지진 후의 계엄령 및 학살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에피소드를 넘어선 문제라는 사실이다.

17) 森永英三郎, 「解説」, 山崎今朝弥, 『地震・憲兵・火事・巡査』, 岩波文庫, 1982.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변론으로 유명한 아마자키 게사야의 증언은 가장 명시적인 사실을 통해 관헌을 비판한 사례로 알려져 있다.

18) 다음의 책에 전체 구성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다. 김재홍, 「김동환론」,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19) 金東煥, 『昇天하는 青春』. 인용은 현대어 표기로 바꾼 후 띄어쓰기를 했다. 서언의 경우 활자 상태가 고르지 못해, 마지막 구절은 유추에 의존했다.

이어서 각 부의 목차가 나와 있는데, “一 태양을 등진 무리, 二 二年前, 三 눈우에 오는 밤, 四 血祭場의 노래, 五 殉情, 六 피리 부는 가을, 七 昇天하는 青春”이라 되어 있다. 제1부는 시체들이 나가는 문이라 해서 붙여진 시구문(屍口門, 光熙門) 밖 공동묘지에 아이를 묻는 여자와 그를 따르는 남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제2부에서 배경은 곧 일본의 나라시노이재민수용소로 이동하며 여기서 주인공들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제3, 4부가 이어진다. 제5부부터는 일부 회상 장면을 제외하고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두 사람이 겪는 일들에 대한 묘사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묘사된다. 다시 말해 시간적으로는 제3, 4부가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며, 이어서 제5부, 제6부, 제7부의 일이 이어서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제1부의 사건이 있었던 셈이다(사건 전개가 중심이지만 제1부 등에서 난삽한 비유들이 계속 이어지는 등 사건의 전개는 느린 편이다. 제7부를 비롯해 이들의 죽음에 대한 작가의 다소 장황한 감정적 개입이 있다).

‘이야기시’로도 규정되는 만큼 이 서사시에는 비교적 분명한 줄거리가 있다. 시가 시작되면 시구문 밖 공동묘지를 헤매며 어린아이의 무덤을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이 묘사된다. 여자는 거의 혼이 빠져 있으며, 아이를 묻고 떠나는 여자를 한 남자가 뒤따른다. 이어서 일본 지바현 나라시노수용소로 배경이 바뀌는데, 여기서 지진의 충격으로 죽어가는 폐병 3기의 한 청년과 그의 누이동생이 등장한다. 병자의 친구와 누이동생은 이미 얼마전 공산주의 조직의 집회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수용소에서 이들의 사랑은 깊어진다. 병든 오빠는 끝내 온갖 절망에 휩싸여 죽고 마는데, 곧이어 사랑하는 남자마저도 계엄군에 호명되어 끌려나간다. 공산주의운동과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학을 포기하고 오빠의 유골을 안고 돌아온 여인은 고향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하지만,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아기를 낳아 쫓겨나고 만다. 서울로 온 여인은 가난 속에서 혼자 아기를 낳아 기르다가 친신만고 끝에 연인을 상봉한다. 하지만 아이는 병들어 죽고, 시의 처음에 놓인 삽화처럼 두 사람은 아이를 묻고 세상을 한탄하며 함께 투신자살을 하고 만다.

어떤 출구도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비극성도 문제적이지만, 오히려 여기서 내가 주목하려는 것은 이 수용소 안의 조선인들에 대한 시인 김동환의 존재 규정

이다. 이들은 생명, 생령, 산송장 등으로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에게는 영혼이 허락되지 않거나, 신체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몸만 있고 영혼은 흐트러진 상태를 생령만의 상태라 한다면, 영혼은 있으되 어떤 유의미한 움직임도 불가능한 상태를 산송장의 상태라 할 것이다.

저 대지진 속의 학살에서도 살아 남은 조선인들은 “흰 옷 입은 이름”(35쪽)이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마량초(馬糧草) 위에 몸을 굽히고 한숨 쉬는 수천 생령(生靈)”으로 화한다. “무덤같이도 온 수용소가 고요에 잠길 때” 이 수용소의 조선인들은 “이제는 살았다”라고 한숨을 쉬지만, 이들의 상태는 시인에 의해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 즉 일종의 생령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즉 살아 있는 유령들 이야말로 이들의 상태인 것이다(여기에는 사회주의자들, “대야 걸고 밀가루떡 지어 먹던 중국사람들”도 일부 수용되어 있다). 날마다 도망자들과 죽은 자들을 확인하는 이수라장의 풍경을 김동환은 이렇게 명명한다. “진재(震災)의 참화를 요행 벗고 나았은/ 총과 칼에 호위되어 먼 하늘만 치어다보고 지내는 흰옷 입은 족속의 그래도 생명이 살아 있느라 부르는 노래소리.”(33쪽)

불시에 나도! 나도! 하는 때소리가 터진다.

이것은 아침밥 죄기 분배되기 시작함이라

아홉 대가리 배암같이 빨간 혀를 나불 나불 거리며

나두나두하고 손을 들어 밥말 나는 모양

인피(人皮)를 바르는 아귀(餓鬼)이던가, 위대한 야성에 하느님도 눈살을 찌푸리러니

그곳에는—

어찌다가 그만 이마에 뚜렷한 낙인(烙印)을 받은 이

불꼬치에 낫판땀을 원통 끄슬려 흑노(黑奴) 같이 된 이

어떤 이는 팔을 못 쓰고 어떤 이는 다리를 절며

모다 싸움터로 돌아온 폐병(廢兵)같이 집 잃고 떠도는 선물을 받고 앉아 있다.

(33~34쪽)

인피를 바른 아귀, 이마에 낙인 찍힌 자, 그슬린 아프리카 노예[黑奴], 팔을 잃고 다리를 저는 자들은 겨우 학살로부터 벗어났지만, “죽음이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어 가지고 이재민을 위협”(71쪽)하는 수용소에서 삶과 죽음의 사이를 계속 왕복한다. “이재민 목숨 같은 촛불”(74쪽)의 밤마다, 학살, 강간, 도망과 응징, 사산(死産)의 이야기가 병영 안을 떠돈다. 이방인들은 “발광할 듯이 모든 신경이 진동”(72쪽)한다. 주인공 청년은 기도한다. “가리어 낸 백성들이여, / 人頭稅를 물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인간들이여 복 있을 지어다”(76쪽)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국경의 밤」에서 산송장을 이야기하던 시인이 「승천하는 청춘」에서 뚜렷이 이미지화하고 있는 존재는 앞서 말했듯이 산송장, 죽은 송장, 그리고 ‘생령’(生靈)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들이 ‘생변’(生蕃), 즉 법권리나 시민권을 문제삼을 수 없는 자연상태의 토인이라 규정되었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한 정치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란군의 일부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본래 타이완 원주민을 뜻하던 ‘생변’은 이 시에서 조선인이 스스로의 처지를 규정하는 말로, 수용소의 조선인들은 요컨대 ‘하늘도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위대한 야성’을 가진 인피(人皮)를 바르는 아귀(餓鬼)떼에 다름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살아 있는 죽은 것’(living dead) 혹은 즉 ‘아직 죽지는 않은 자’(the undead)이다. 이를테면 “그는 죽지 않았다”(He is not dead)는 말과 “그는 안-죽은 존재다=그는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다(He is un-dead)”라는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앞의 말은 특정한 상태, 즉 죽음을 부정함에 비해, 뒤의 말은 (완전한) 죽음을 제외한 다른 어떤 것, 이를테면 살아 있음과 같은 사실을 긍정할 수 없음을 함축한다. ‘안 죽은 존재’라는 판단은 아귀떼나 뱀파이어와 같은 피조물을 죽은 자의 영역에서 축출하는 한편, 살아 있는 것의 영역으로부터도 배제한다. 즉 상태를 한정하지 않는 순수한 부정(의 제스처)인 것이며, 사건을 설명하는 한정적인 표현인 동시에 상태 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무한정한 한정’이다. 한 존재에 대한 상례적 판단이 불가능할 때, 그럼에도 재현 혹은 결정이 필요할 때, 예컨대 언어화될 때 이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 판단 위에 머물도록 만든다.²⁰⁾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살아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사실상 죽어 있지만 여

전혀 숨을 쉬고 있는 ‘생변’이었다가 ‘산송장’이 된 사람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자연이기도 하지만, 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학적 코마 상태도 아닌 이들 ‘비(非)-시민’들은 법의 ‘예외’ 속에서 죽을 수조차 없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시인은 이들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신성한 자인 ‘호모 사케르’로서가 아니라, 애써 여러 군데서 전시 포로로 의미화하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럴 수 있는, 재판을 거처지는 않았지만 중범죄자인, 무기를 소지한 적이 없으나 전시 포로인 그런 존재들이다.

이곳의 법률(法律)이란 도망한 자 있으면
곧 나팔 불고 감시병이 말타고 분주히 뛰다니느니
그리고는 요란한 총칼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아닌죽은 병영집채를 뒤집느니
중죄범인이 탈옥(脫獄)한 때 모양으로(39쪽)

이들을 관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계엄령 하의 군대인데,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적이거나 내란을 일으킨 반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들은 적이거나, 적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적인 이유는 전쟁/내란을 전제하는 계엄령 하의 ‘비상상태’ 속에서라면 누군가는 적으로 선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당시의 메이지헌법 하에서 계엄령은 전시 또는 내란[國家事變]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했고,²¹⁾ 따라서 임전(臨戰) 또는 폭동의 발생이 전제되어야 했는데 일본 당국이 계

20) 삶과 죽음 사이, 법과 예외 사이에 놓인 인간에 대한 ‘무한정한 한정’, 부정적 판단에 대해서는 슬라보예 지젝, 이성민 옮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 도서출판b, 2007.

21) 「대일본제국헌법」의 제2장 제31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본장에서 든 조규는 전시 또는 국가사변의 경우에 있어 천황 대권의 시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 조항은 그 전에 존재했던 원로원 국헌(1880)의 제3편 제17조를 답습한 것이었다. “내란외환(內亂外患)의 때에 있어서는 국안(國安)을 지키기 위해 제국의 전부 혹은 일부에 있어 잠정적으로 국헌 속의 모든 규정[諸款]을 정지할 수 있다”(高木八尺·末延三才·宮沢俊義 編, 『人權宣言集』, 岩波文庫, 1957(2000), 386쪽, 389쪽). 소위 ‘사변’과 ‘내란’ 모두 외침이 아니라 폭동 혹은 시가전 상황을 전제로 하기에, 계엄령 발동은 헌법에 대한 명백한 확대 해석에 기초해 있었다.

엄령을 실시한 근거로 남긴 것은 조선인 폭동과 관련된 미즈노 렌타로의 담화뿐이었다. 전쟁/내란이 있어 계엄령이 실시된 것이 아니라, 계엄령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전쟁/내란이 존재해야 했던 셈이다. 계엄에 준하는 상황은 오히려 관헌 및 자경단과 같은 일본 민중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여하튼 계엄령이 선언된 이상 조선인은 ‘적’으로서 제거되어야 했다.²²⁾ 적어도 국제법적으로 일본인이었던 조선인들은 외적(外敵)일 수 없었으며, 따라서 ‘내란을 일으킨 적’이어야 했고, 그렇게 선언되어 ‘진압’되었다. 외적과 내적의 중간 상태에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던 이들, 그러나 용케 살아남았던 조선인들은 이내 수용소로 옮겨진다. 이 이동은 삶과 죽음의 중간 상태, 봉기한 생변에서 진압된 ‘산송장’으로의 이동을 뜻했다.

김동환은 그 상황과 이유를 “흰 옷 입은 이름”에 대한 “하늘의 참혹한 配劑(처분·처방: 옮김이)”라 읊고 있는데, 거기서 조선인들은 삶과 죽음, 문명과 야만의 중간 상태에 있다. “계엄사령관은 또 무슨 일!” — “여럿의 경례를 받고는 시령에 달린/ 生蕃 대가리 같은 수천 수백 두개골을 보고는/ 은근히 손을 붙이며 지나간다.” 계엄사령관 앞에서 이들은 적어도 법적으로 반란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시인은 그러한 상태를 일종의 전쟁 없는 ‘전시’ 상황 혹은 폭동 없는 ‘봉기’의 결과로 언어화한다.

적으로 선언당한 무리의 한 사람인 주인공의 뇌리에 스치는 스스로의 삶의 최대치는 곧 “싸움-출정-부모이별-점호-靑瓦斯-화재-피난-국기-파-눈물 그리고/ 만세-백기-포로-조국”(93쪽) 같은 ‘전시’(戰時) 혹은 ‘봉기’의 상상일 수밖에 없다. 무구한 자들의 수용소라는 상황을 이해하는 길은 처음부터 죄를 짊어졌다는, 혹은 처음부터 싸움과 출정과 만세가 있었고 패전이 있었다는 상상을 해 내는 길뿐인 까닭이다. ‘산송장’이 ‘죽은 송장’을 매어 나르는 이 수용소에서 영(靈)을 유지한 자가 상상할 수 있는 이 상태에 대한 최대한의 정의란 ‘전쟁’ 이상일 수 없을 터이다. 있지도 않은, 그러나 잠재적으로는 있어야 할 조국에 대한 믿음이 이런 억울할 수밖에 없을 상상을 떠받친다. ‘외딴 나라’에서 포로가 된 것이라는 것.

22) 강덕상, 홍진희 옮김, 『조선인의 죽음』, 동쪽나라, 1995, 44~45쪽.

‘전시’ 포로이자 영토 내 법의 예외적 공간에서 ‘보호’되고 있는 「승천하는 청춘」의 중심 인물, 즉 세 명의 조선인 학생은 이 서사시의 영웅, 아니 반영웅들이다. 한 사람은 병을 앓고 있고, 그의 친구가 있고, 또 병자를 간호하는 그의 누이가 있다. “외딴 나라 백성의 꿈을 싣고 달아나는 병영의 밤”(48쪽)의 한 풍경이다.

위털루의 古戰場도, 더구나 국사범 받는 런던탑(倫敦塔)도
이렇게도 처량하였던가? 피비린내도 이렇게?
꿈은 차다 異邦동포의 꿈은 차다
파-란 달빛에 젖어 우는 떠다니는 이 꿈은 더욱도 차다
더구나 마음속까지 파-란 꿈으로 病人네이야
뼈만 남은 그 몸집은 藥이 天使언만
그 약조차 얻어 먹지 못하는 이곳이어
하늘만 애연히 부르지 지내는 病室은 너무도 처참하다
오만한 백성에게 내리는 하늘의 담금질을 피한 목숨이
역사를 달리한 어느 손에 걸린 담금질까지 피한 목숨이
이제 또 푸른 다락 똑딱하는 독갑의 떼같은 병마에까지
목숨의 담금질을 받는다면 아, 하늘은 너무나 무심하느니

六

열 창 아래 꿈이 거미줄에 걸려 올 때
고향의 꿈이 修道女의 ‘하느님’같이 연해 病人의 가슴을 스칠 때
말먹이 깔 위엔 沙洲를 건너는 앓는 이 하나. (43쪽)

‘하늘의 담금질’, 즉 자연 재앙과 ‘역사를 달리한 어느 손에 걸린 담금질’, 즉 이웃에 의한 재난이 함께 피식민자의 신체에 육박해 온다. 별거벗은 삶에게 오는 재앙이 종종 그러하듯이,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이 동시에 도착한 것이다. 이 신체를 ‘보호’하는 곳—나라시노이재민수용소의 나날은 그래서인지 마치 재

양처럼 ‘법’과 무관하게 열리고 닫힌다. “또 사람을 죽었니?” “강간을 하였는 게 지!” “도망하다 붙잡혔는가 보다” 하는 공론과 소문이 들끓는 수용소(72쪽). 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자연상태는 참혹하다. 갇힌 주인공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의 처지를 수용소의 역사에까지 소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로가 아닐까’.

나라시노 수용소는 제1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 칭다오(靑島) 독일 조차지에 주둔해 있던 독일군 중 1,000여 명이 연합국에 참전한 일본군의 포로가 되자,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바현 나라시노시에 설치되었다. 포로수용소 주변에는 근위사단 제1사단 휘하 제13~16기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으며, 이 기병대는 관동대지진 때 도쿄, 요코하마로 실탄무장을 하고 출동해 조선인과 중국인 학살에 가담하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한편 1923년 9월 4일 제1사단장은 기병연대주둔지 동쪽에 있는 다카쓰창고(高津廠舎)에 수용소를 다시 열어, 사지로부터 목숨을 건진 조선인과 일부 중국인을 수용하게 된다.

물론 수용소란 결코 안심하고 몸을 쉴 수 있는 그런 땅은 아니었으며, 헌병의 첩보활동이 진행되어 조선인 중 사상이 의심되는 인물들이 선별되어 수용소 밖으로 쫓겨났다. 수용소 밖에는 이방인에 대한 적대와 살의로 들끓는 본국인들이 있다. 이 ‘선별된 이국인’들이 군대의 묵인 하에 본국의 민간인들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증언이 남아 있다. 수용 직후인 9월 7일 이후 군대는 수용소 인근의 마을에 조선인을 “넘길 테니 받으러 오라”한 후, 증오심에 가득찬 일본인 주민들(현재의 야치요시)에게 이들을 넘겨 살해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실상 명령과 증오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수의 유해가 발굴된 이곳에 세워진 위령비 속에는 지금도 ‘이국인(異國人) 희생자’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예외상태가 모든 상황을 선명히 보여 주는 모멘텀이라면, 결국 일본과 조선은 (적어도 잠재적으로는 내내 전쟁상태였던) ‘다른 나라’[異國]였던 셈이다.

일본정부가 시행한 조선인의 수용소 억류 및 일본사회로부터의 격리 조치가 의미했던 바는 무엇일까. 메구로(目黒), 나라시노(習志野) 등의 여러 수용소 운영은 이를 통하여 조선인의 이동을 막고 학살 사실이 조선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

단하기 위한 계엄 정부의 ‘조치’였다. 식민지 지배질서의 동요를 막는 동시에, 일본민중과 조선인을 격리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선인을 학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는 당연히 피를 본 민중들을 진정시켜, 일본의 사회질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 일본정부의 조선인 수용소는 식민통치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질서의 안정까지 고려한 것이었으며, 대외적으로는 학살사건을 ‘조선인 범죄화’의 결과로 선전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식민지 조선으로부터의 항의를 피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조선인 학살과 표리를 이루는 조선인에 대한 수용소(camp) 격리는 ‘조선인 범죄’라는 인식을 굳혀 둔 상태에서 ‘내선융화’의 조치의 일환으로 선전된다. 학살에서 드러났던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제’를 그대로 간직할 채 이루어진 조치였으며, 보호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통제 정책이었다.²³⁾ 지금도 자위대가 주둔하고 있는 나라시노 위에 중첩된 전사(前史)는 그런 것이었다.

몇 가을 봄이 디디고 갔는지
 그 벽은 세월의 발자국으로 찼는데
 모든 破壞 속에도 이를 악물고 버티어 잇든 듯한
 손톱으로 그은 글자여! 획이여!
 ... 중략 ...
 German, Cherup
 그는 깜짝 놀라며, “독일만세”라고 불렀다.
 옛날에 독일병정이 포로되어 이곳에 갇혔다더니
 한 점, 한 획 피로, 눈물로 끼쳐둔 遺蹟의 이 글자가 오늘까지 잇듬이어
 청년의 눈에 어떤 비장한 사실이 떠오른다—(78쪽)

23) 노주은, 「관동대지진과 일본의 재일조선인 정책 : 일본정부와 조선총독부의 '진재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자연적 재앙 후에 강제적으로 구성된 비상사태는 청년에 의해, 전쟁과 패전, 조국애와 비탄과 같은 장소의 전사(前史)에 중첩되어 표상된다. 독일 병정들은 그나마 ‘포로’였기에 국제법과 제네바협약의 적용 대상으로 다루어졌지만, 이들 조선인들에게는 오직 ‘조치’와 처분만이 법이자 자연이었다. 하지만 시인은 애써 이 상황을 존재한 적 없는 전쟁의 결과로 의미화한다. ‘적’으로 선언당한 이상, 적어도 정당한 적, 외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전쟁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전쟁일 뿐 아니라, 또한 사회주의자와 제국주의자 사이의 전쟁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 둘 모두를 갖춘 진정한 적은 이 보호 시설에서조차 살아남지 못했다. 세 명의 조선인 청년이 바로 이 이중의 ‘적’으로 선언된 사람들이었다. 놀라운 것은 이 감상적 낭만주의의 시인이 그러한 상황에서나마 사랑을 근원적 무기로 설정해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랑, 미래, 영원이라는 연결(66쪽) 속에서 친구와 누이는 수용소에서 사랑을 시작한다.

아하, 붙어라, 붙어라 두 青春의 불길이어
 高原의 燄火같이 生命기둥을 灼熱시키며 붙어라
 새로운 새벽이여, 새로운 나라의 展開여(65쪽)

‘붙어라, 붙어라’하는 명령형 어투를 통해 짐작하듯이, 이 사랑은 그때 거기서 가능했던 사랑이라기보다는 시인에 의해 ‘요청된’ 사랑이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 그들이 겪을 가혹한 운명을 짐작하게 한다. 시인에게 또 시 속의 등장인물들에게 소위 ‘청춘의 불길’은 ‘새로운 새벽’과 ‘새로운 나라’를 촉발하는 그런 불길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랑은 그들이 바라는 새벽이나 나라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

식민본국의 ‘콧’ 그룹 안의 이방인 혹은 식민지 출신 ‘콧’으로 만난 동지에서 진재 속의 붉은 연애로 옮겨가는 이 두 사람 앞에 놓인 잔혹한 운명의 첫 관문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했을 폐병 3기 병자 친구의 죽음이 기다린다. 약이 천사임에도 그 약마저 만나보지 못하고 친구는 숨을 거둔다. 그러나 죽어가는 자는 이 죽

음이 한갓 잠재적인 상황의 현실화에 불과하다는 듯, 이렇게 말한다. “어제까지도 내 마지막 피라도 어느 일을 위해 뿌리려 했지, 어느 손팔이들이 너무 몹시 괴로움 받는 것 보고 이 몸을 뜻있게 바치려 했지 그러나 …(중략)…우리 같은 이에게 그러한 땅이 아니었네.” “우리는 감옥에 가거나, 도적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죽으나 할 밖에 그런데 나는 넷째 길을 취할라네!”(96쪽) 지진이나 계엄령 이전 에 이미 ‘감옥, 도적, 거지, 죽음’이라는 네 종류의 삶밖에 없었던 존재. 친구는 “이 몸을 뜻있게 바치려 했지”(45쪽)만 이 죽음은 봉헌하거나 기념할 수조차 없다. 이 재물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인(囚人)이나 도적이거나 거지 혹은 (산)송장을 어찌 재단에 올리겠는가.

이들이 사랑을 확인하고, 시의 초입에서 이미 죽어 나타나는 훗날의 생명을 잉태하던 그 즈음, 마침내 남자는 검속 위의 검속을 만나 다시 외부의 외부——즉 자경단의 살육이 판치는 공간으로 쫓겨난다. “이재민 속에 언짢은 분자가 있다고 그를 빼 버리기 위한 숨은 계획이 이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는 가운데 시행됨 이었다.”(98쪽) 수용소에 갇힌 잠재적 적은 마침내 완전한 적으로 선언되고, 비잠 재성-실재성의 공간으로 옮겨진 채 사라진다. 그렇게 사랑이 끝나자, 수용소의 삶이 끝나자, 그들에게는 다시 가혹한 귀환 후의 식민지 생활이 시작된다. 사랑이 있고 새 생명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끝나고 이들 산송장이었던 사람들, 생명만이 남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태를 실현하고는 사라진다. 생변에서 산송장까지, 산송장에서 죽음까지가 김동환이 표현했던 대지진이 알려준 피식민자의 운명이었다 셈이다.

5. ‘3·1’에서 ‘3·11’까지, ‘3·11’에서 ‘3·1’까지 : 그들/우리들

19세기 말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최초의 수용소들이 모두 식민지 전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잔인하지만 의미심장한 사실이다. 식민지, 혹은 피식민자라는 신체야말로 예외상태[비상사태, Ausnahmezustand]가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뿐만 아니라 민간인들 전체에게로 확장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

인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수용소는 영토를 가지는 관습법이 아니라, 영토 안에 법의 예외, 규칙의 예외를 창설하는 탈영토화의 과정, 즉 예외상태와 계엄령에서 유래했던 것이다.²⁴⁾ 식민지 혹은 피식민자의 신체는 이러한 예외의 상례화가 먼저 시행된 일종의 실험실이었다. 어떤 의미에서 식민지 혹은 피식민자의 거주지란 법적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조치의 공간인 것이고, 이 비식별역에서야말로 예외상태 혹은 비상상태가 생겨날 수 있었던 것이다(제국일본의 내지와 외지 사이에 놓인 헌법역과 통치역의 단애斷崖, 법과 영수의 차이 등을 떠올려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나라시노 이재민수용소란 결국 무엇이였을까. 조르조 아감벤은 1923년에 세워진 코트부스-질로프(Cottbus-Sielow)의 ‘외국인 집단 수용소’를 아우슈비츠의 전사로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라시노의 이재민수용소에 조선인이 갇힌 것이 대략 그때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대량 학살이 진행되던 와중에 일본정부는 9월 5일의 각의 결정을 통해 계엄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출동한 계엄군 그 자신으로 하여금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용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양자 모두에서 조직적 집단 학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전단계인 민간인에 대한 법권리의 정지와 그 정지 및 조치의 심급들이 시험된 것만은 분명하다. 수용소가 근대의 ‘일반적 예’가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였으며, 공교롭게도 ‘외국인 집단수용소’는 1923년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정부의 비상사태의 선포, 1923년 일본의 다이쇼 ‘데모크라시’ 정부의 계엄령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다.

문학적 논제로 돌아가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렇다면 대학살과 연이은 예비검속(Schutzhaft, 글자 그대로 예방적 구금), ‘보호’라는 명분 하에 행해진 수용소 처분의 조치를 배경으로 한 김동환의 「승천하는 청춘」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시의 발생’ 혹은 문학의 발생, 특히 이웃과의 사랑 혹은 적대에 얹힌 언어의 역할이

24) 아감벤, 『호모 사케르』, 315쪽. “강제구금의 법적 기반이 관습법이 아니라 예비검속(Schutzhaft, 글자 그대로 예방적 구금)이며, 이는 프로이센에서 유래하는 법제로서 오로지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신병을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란 무엇일까.

이제, 이 서사시의 절정을 이루는 제4장 “혈제장(血祭場)의 노래”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 터이다. “혈제장”(血祭場)이라는 공간, 즉 피의 제전이 열리는 땅이란 어떤 곳인가. 혈제란 산 짐승 혹은 인간의 피를 바치어 지내는 제사(祭祀)에서 기인한 말로, 구약(舊約) 시대의 여러 제사(祭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受難)과 같이, 피를 흘려 마련한 제물(祭物)을 드리는 제사를 뜻한다. 그런데 단순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 장에는 어떤 제사도 등장하지 않는다. 과연 여기에 산 제물이 있는 것일까. 이 시에서 수용소 안의 인간들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1) “구데기같이 구불데리고 자는 수십수백의 상투쟁이”(83쪽)
- 2) “별 밑에 모다 문둥이떼 같이 보이”(84쪽)는 이들.
- 3) “가리어 낸 백성들이여, / 人頭稅를 물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인간들”(76쪽)

이미 “무덤”이고, “산송장”이자 “생령”인 존재들로 가득한 이곳에 제사에 바칠 만한 ‘깨끗한’ 제물이 있을 리 없다. 오직 있는 것은 죽여도 죄가 되지 않으며, 제물로도 바칠 수 없는 이 존재들, 이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인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죽여도 죄가 되지 않지만 제단에 바쳐질 수는 없는 인간, 가장 귀하거나 가장 천하여 접촉할 수도 없고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인간,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와 닮아 있는 어떤 형상을 발견한다. “봉헌, 제물을 바치는 일은 보통 어떤 대상을 인간의 법에서 신의 법으로, 속세의 것을 신성한 것으로 이전시키는 반면, 호모 사케르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신의 법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인간의 법정 밖으로 내쫓긴다. 희생물로 바쳐질 수는 없지만 죽여도 되는 생명이 바로 신성한 생명”인 것이다.²⁵⁾

바로 이 수용소라는 강제적으로 창출된 예외상태 안에서 그러한 ‘거룩한 인

25) 아감벤, 『호모 사케르』, 176~177쪽.

간들'이 집단으로 생겨나고, 아니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김동환이 말하는 “하늘의 참혹한 배제(配劑)” 혹은 도망하는 자를 죽이는 형태로만 존재하는 “이곳의 法律”이란 바로 그러한 ‘혈제’ 없는 ‘혈제장’의 상태, 신과 인간 모두에게서 버림받아 신적 폭력과 신화적 폭력에 동시에 노출된 상태를 뜻하는 것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인 김동환은 이러한 예외상태를 일종의 전시 상태, 나라 와 나라 간 전쟁의 결과로서 애써 의미화하여 보여 준다. 신의 언어, 법의 언어 모두로부터 배제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또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자로서의 스스로의 정당성을 위해, 또 서정적인 동시에 호전적인 시인이기 위해, 그는 그렇게 한다.

김동환이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에서 읊은 이 이방인 혹은 이방인의 체험은 신의 법과 인간의 법 양쪽으로부터 배제되는 순간, 오직 인간에게는 문학의 언어-노래만이 남게 됨을 보여 준다. 그러니까 노래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관습법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노래하게 하는 것은 이인(異人)이거나, 이인됨의 체험 그 자체인 것이다. 이들은 완전히 추방된 것도 아니며 밖에 포획되어 불들리듯 남아 있다. 잔혹한 이야기지만 이들에 대한 ‘포함하는 배제’, 차별과 포획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외침과 신음이야말로 노래의 기원인지 모른다. 수용소의 온갖 민요 가락들과 그마저 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비명 사이에서 노래가 태어나고 유전된다.

추방, 디아스포라[離散]란 그런 의미에서 근대, 아니 우리 시대의 상례인데, 그것은 오직 동일률로서 우리가 우리를 호모 사케르라 규정하는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동정(同情)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우리의 잠재적 운명으로 느끼는 일을 뜻한다. 어디든, 누구든, 어떤 상태에서라면 그곳의 그들 모두는 1923년 나라시노의 조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동대지진에 이어 일어난 조선인과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학살, 예비검속과 수용소 보호란 실은 주권 권력 자체를 보호하는 행위이지 인민을 보호하는 행위일 수 없다. 연이어 현실화될 치안유지법 체제, 즉 국체변혁의 의도를 가진 민간인 전체에 대한 ‘잠재적’ 예비검속 상태란, 어떤 의미에서 언제든 전일본이 캄

프화될 수 있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었던 것이 아닐까. 수용소란 예외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이며, 상시적 예외가 허용되는 곳은 그런 의미에서 (잠재적) 수용소인 것이다. 아감벤에 따르면 이러한 수용소의 정치는 더 이상 특정한 공간 내의 생명 형태와 법적 규칙을 명령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체 안에 그러한 체계를 넘어서는 탈영토적 위치 확정(localizzazione dislocante)을 포함”하게 된다.²⁶⁾

계엄령, 비상사태란 본디 국가의 위기에 따라 개인의 법권리 및 법 그 자체를 임시로 유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수용소라는 지속적인 공간적 배치를 획득하게 되자, 이제 법 밖의 질서 자체가 정상적인 질서를 근거짓게 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수용소는 국가-국민(출생)-영토라는 과거의 삼위일체에 추가되면서 그것을 파괴시켜 버린 제4의 불가분의 요소이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무엇보다 ‘제국’이 법이 공허해지는 바다를 넘어 ‘식민지’에 도착했을 때 가시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국민, 영토가 일치하지 않는 제국-식민지의 공간에 비식별역으로서 수용소가 설치되기 시작하자, 그것은 곧 모든 인민의 잠재태가 된다. 식민본국의 사회주의자들과 아나키스트들이 조선인과 동일한 처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 사상범예비구금과 같은 조치들이 식민지에서 개발되어 본국으로 이입되었다는 것과 같은 사실을 떠올려 보라. 이 제4의 불가분의 요소인 수용소의 정치를 통해 우리는 식민지와 제국이 얼마나 밀접하게 자신을 적용하고 또 재적용(readaptation)하는지를, 서로가 서로를 ‘상보’(相補)하는 구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상보성이라 함은 제국-식민지 사이에 가로 놓인 이해관계의 역동성과 천이(遷移)-역천이(逆遷移)의 관계를 의미한다. 비근한 예일지 모르겠으나, 가우리 비스와나탄(Gauri Viswanathan)은 인도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참조할 지점은 실은 영국의 상황과 비교하여 적절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고, 또한 그 역(逆)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녀에 따르면 제국-식

26)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315~339쪽.

민지 및 그와 유사한 헤게모니 관계에서는 일종의 ‘상보성의 원리’(principle of complementarity)가 존재한다. 여기서 상보성이란 한쪽이 우선하거나 다른 한쪽으로 결론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양자가 병렬해 있는 것도 아니며 양자 간의 접점이란 것이 존재해서 그것을 통해 임의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다. 상보성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은 상호 전이(轉移)의 가능성 그 자체이다. 주체, 대리자, 사건, 의도, 목적 같은 요소들이 몇 개씩 모여 서로 교차되면서 상호 전이가 일어난다. 그것은 전체를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용(readaptation)을 의미한다. 상호 전이가 사회적 요소들에 의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고 어느 정도까지 불가능한가의 문제가 새로운 역사적 블록이 형성되는 경계를 구획한다.²⁷⁾ 물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검토점은 상호전이나 상보성이라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개별적 장소와 발화 지점들에서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따져 묻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소략하나마, 이러한 문제를 한 사람이 쓴 두 편의 서사시를 통해 확인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두고 싶다. 동정 혹은 환치로 가득 찬 「국경의 밤」은 그림에도 그 끝에서 영내 이민족인 소금실이 밀수출마차꾼 병남의 죽음을 향해 이렇게 쓰고 있다. “거기 묻힐 때 죽은 병남이 글 배우던 서당집 노훈장이, / “그래도 조선 땅에 묻힌다!”하고 한숨을 휘-쉽다./ 여러 사람은 또 맹자나 통감을 읽는가고 멍멍하였다./ 청년은 골을 돌리며/ “연기를 피하여 간다!” 하였다”(제71장). 필시 청년이 경험했을 제국일본의 폭정을 뜻할 ‘연기’로 인해 과잉 동일시된 이 죽음은 초두에 말한 저 일국민속학이 자랑하던 ‘안으로부터의 관찰’을 묘하게 뒤틀린 채 닮아 있다. 재가승 병남의 역사적 처지가 어떻게 조선땅에 묻힌다 하여 위로받을 수 있겠는가. 과연 처지를 바꾸어 보는 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고통의 환치란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이 환치를 윤리적인 요청이자 근원적 (불)가능성으로 생각해 보는 일은 중요하다.

27) Gauri Viswanathan, *Masks of Conquest : Literay Study and British Rule in India*,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9, p. 8.

우리는 「승천하는 청춘」에서 시적인 것이 아니라, 시의 근원 그 자체를 만난다. 공동묘지의 계절풍경에 대한 장황하고 부조화된 묘사와 같이 시의 울조나 정조를 훼손하는 지나친 장시화, 신파조의 변사투 사설이 따라붙은 연애묘사, 전반적으로 서사시나 이야기시라기보다는 이야기 그 자체로 흘러버린 제6장과 같은 평면적인 ‘이야기’ 전개 따위 그 너머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너무 장황한 직유법들이 감추고 있는 이방인의 흔적들이야말로, 그리고 이 이방인의 재발견을 이끌어낸 상상력 및 트라우마야말로 ‘(인)문학’을 통해 재앙에 처한 이웃을 근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대목의 하나가 아닐까.

영내의 고통받는 자들 — 식민지 조선의 한 작가가 표현한 바, 영내의 ‘벌레, 돼지, 이슬람교도’들이야말로 영내 인민의 예외가 아니라 ‘예’로서 고통받는 자들이며, 그럼으로써 영내 모든 인민에게 잠재된 운명을 보여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제는 결코 이타주의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은 좋은 이웃, 위대한 이웃, 불쌍한 이웃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웃 사랑에 관한 명제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한다. ‘벌레’에게, ‘무젤만’에게, 또 이방인에게 감사하라. 그들이 우리의 운명을 미리 보여 주어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깨우쳐 주기 때문이다. 이 사랑에 실패할 때, 이 사랑에 게으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신의 폭력과 신화적 폭력의 결합을 방관하는 자가 되며, 그럼으로써 자연의 재앙과 법의 재앙을 머잖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요절한 재미 시인 차학경은 “일본은 기호가 되었다. 알파벳, 어휘”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왜 지금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가. 과거로부터. 역사를. 그 오랜 상처를. 지난 감정을 온통 또다시. 그것은 똑같은 어리석음을 다시 사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이다. 지금 그것을 불러일으켜 잊혀진 역사를 망각 속에서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말과 이미지 속에서 또 다른 말과 이미지를 조각조각 끄집어 내어 잊혀진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끄집어 내기 위해서다.” 물론 과거의 반성과 과거에의 기억을 촉구하는 말이다. 윤리적으로 이 말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 의해서도 다시 상기되어야 하고, 또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랑의 응답



야치요(八千代)시의 장복사(長福寺)에 있는 학살된 조선인을 추모하는 공양탑

‘조선인’이 아니라 ‘이국인’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나라시노이재민수용소에 ‘보호’ 수용되었던 이들 중 반항적인 인물, ‘불온’ 사상을 가진 인물들은 야치요시 등의 인근 자경단에 넘겨져 살해되었다. 관동 대지진 때, 오스기 사카에(大杉栄), 이토 노에(伊藤野枝) 부부와 조카 등이 아마카스 마사히코(甘粕正彦) 헌병대위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일이나, 노동운동가이기도 했던 소설가 히라사와 게이시치(平沢計七), 공산청년동맹의 가와이 요시토라(川合義虎)가 기병 제13연대 병사에게 학살된 일 역시 비상사태 하에서 국가의 적이 된 자들의 공동 운명이었다 할 수 있을는지 모른다.

에는 순서가 있지만, 본디 사랑에는 순서가 없다. 무엇보다 핵이 지배하는 시대에는 모든 지구가 이웃으로 화한다. 3월 1일이라는 상징 안에서 가깝고도 먼 나라라 알려진 우리의 이웃은, 3월 11일 이후 완전히 가까이 와 있다. 우울한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이 이웃과 방사선 혹은 방사성 물질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이웃의 고통은 미루어 짐작함이나 동정도 없이, 그 어떤 매개도 없이 이미 우리 몸 안에 와 있는지 모른다. 이웃 일본의 재난이 몸에서 시작해 기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저 기호가 된 역사가 이제 몸으로 끝나야 한다. 한 시인의 말처럼 “시는 온 몸으로 밀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시는 잊을 수 없는 상처의 표현일 때조차 사랑을 닮아 있다.

자연은 인간의 비유기적 신체다. 그렇다면 지금 아픈 것은 우리의 이웃이면서, 우리의 몸이면서 또한 우리의 몸이 만들어 낸 아이들까지이다. 후쿠시마를 보

라, 이 요청은 윤리적인 한편, 역사적이며, 역사적인 한편 '온몸'적이다. 그런 한에서 시적(詩的)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신이 의도한 것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더는) 이웃의 재앙이란 없다.

국문초록

재해와 일본의 사상 | 스에키 후미히코

투고일자: 2012년 4월 29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5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일본에서의 재해와 사상이라는 문제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최근 두 개의 커다란 지진재해를 경험했다.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다. 이 두 재해가 일본의 사상·정신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신·아와지대지진은 같은 해에 일어난 옴진리 교의 지하철 사린살포사건과 함께 사상계의 폐색적 상황을 낳았다. 더욱이 그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여 다수의 희생자를 낳았고 망자의 문제를 부상시키게 되었다.

둘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재해의 다발국인 일본에서 과거의 사상은 어떻게 재해를 받아들여 왔는가에 대해 사상사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고대·중세에는 천견설·음양도설·재앙신설 등이 있었는데, 특히 신불(神佛)이 내리는 재앙이라는 설이 널리 수용되었다. 근세가 되면 천리와 인도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특히 안도 쇼에키는 천견설의 입장에서 출발하면서 인간의 행위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는 독자적인 설을 전개하였다. 일반 민중들 속에서는 거듭되는 자연재해에 대해 각종 속설이 등장했다. 특히 막말 안세이(安政)대지진(1855) 후에는 메기 그림이 대유행하였는데, 메기에 의탁하여 재해의 다양한 양상이 묘사되었다. 근대에 이르면 새롭게 기독교가 들어와, 관동대지진(1923) 후에는 우치무라 간조가 지진을 신의 벌로 간주하는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주제어: 재해, 자연, 천견설, 음양도설, 재앙신설, 천벌론

재난과 이웃, 관동대지진에서 후쿠시마까지: 식민지와 수용소, 김동환의 서사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을 단서로 | 황호덕

투고일자: 2012년 6월 10일 | 심사완료일자: 2012년 6월 22일 | 게재확정일자: 2012년 7월 31일

시인 김동환은 관동대지진(1923) 후에 두 권의 장편서사시집을 출간한다. 「국경의 밤」

과 「승천하는 조국」이 그것이다. 사실상의 연작시집인 두 시집에 드러난 '재난'과 '이웃'에 대한 공포를 실마리로 하여, 나는 이 비평적 에세이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제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두 명제 사이의 아포리아에 대해 논하였다.

언어와 경험, 시적 화자와 시의 창작원리라는 차원에서 「국경의 밤」과 「승천하는 청춘」 사이에는 일종의 '연작성'이 존재한다. 관동대지진과 그에 이은 조선인 학살을 겪고 수용소에 유배된 조선인 유학생이 다시 조선의 북국(北國)에 돌아와, 그 상처를 '재기승'이라는 여진족의 후예 여성에게 토로하고 위안과 사랑을 얻으려 하나 실패하고 마는 과정이 두 연작시집을 통해 연속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국경의 밤」이 북국의 겨울을 배경으로 여진족 후예의 처지에 피식민자 조선인의 처지를 가탁하고 있다면, 「승천하는 청춘」에서는 조선인의 처지가 전시의 적(敵) 혹은 포로로 규정되고 있는데, 이는 두 시집에서 산송장, 생번(生蕃), 산주검, 생령(生靈) 등과 같은 삶과 죽음, 법과 법외, 인간과 비인(非人)의 경계에 있는 존재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두 시집은 '이방인의 비명'을 시의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연작성을 갖는다.

특히 「승천하는 청춘」은 한국근대문학에서 처음으로 '수용소'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시인은 이웃이 적으로 선언되고, 인간이 비인(非人)으로 선언되고, 언어가 비명(悲鳴)으로 전락하는 과정을 감상적인 어조의 장시를 통해 장면화한다. '생번'으로 선언된 피식민자가 수용소 혹은 비상사태 속에서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 생령(生靈)으로 취급되는 과정을 그려내는 시인의 시어는 거의 비탄을 넘어 점점 더 이미 죽은 자의 비명에 가까워진다. '산송장'(undead) 혹은 '산주검'(living dead)과 같은 경계 위의 생명이 토해냈을 언어를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근대 한국시의 언어가 탄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시집은 이웃과 재난 사이에 놓인 인간, 즉 비상사태 속의 인간과 그 언어의 운명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명'과 '문학' 사이의 오랜 친연관계를 재증명해준다. 법의 해제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일 수 있기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제는 법이나 계율로서가 아니라 재난과 예외상태까지를 포함하는 궁극적 '윤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주제어: 재난, 이웃, 김동환, 「국경의 밤」, 「승천하는 청춘」, 연작성, 수용소, 식민지, 피식민자, 비명, 생령, 산주검, 산송장, 사랑, 적대, 시의 근원

Disasters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_SUEKI, Fumihiko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iscuss the issues of natural disaster in Japanese intellectual history from two different viewpoints.

First, I would like to investigate the recent intellectual situations in Japan surrounding two large earthquakes: the one occurred in western part of Japan in 1995 and the other was in the eastern part of Japan in 2011. After the disaster in 1995, a sense of impotence prevailed in Japan. After the disaster in 2011, the issues of the dead became an important subject in the intellectual world.

Second, I would like to reflect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hought surrounding natural disasters. In the ancient and medieval periods, the idea of punishment from heaven, yin-yang theory and the idea of divine wrath were the main ideas on the causes of disasters. In particular, the idea of divine wrath was the most popular.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relations between nature and human activities became an important topic in the intellectual world. Ando Shoeki(1703~62) was the most exemplary philosopher who investigated the cause of the natural disaster which he himself experienced in Tohoku district. In the world of popular belief, trembling of a large divine catfish was thought to be the cause of earthquake. In the modern period, Christianity introduced a new idea of “punishment from God” as the cause of natural disasters.

Keywords : natural disaster, nature, punishment from heaven, yin-yang theory, divine wrath, punishment from God

Disaster and Neighborhood, from Great Kanto Earthquake(1923) to Fukushima Disaster(2011): Colony and Camp, A Contemplation from

Continuity of Kim Dong-Hwan's Two Narrative Poems *Night of Borderline & Ascension of Youths* _ HWANG Ho Duk

In the aftermath of Great Kanto Earth Quake(1923), the poet Kim Dong-hwan published two long narrative poems: "Night of the Border" and "Homeland's Ascension". These two pieces form a sequence. Taking on the theme of terror in "disasters" and "neighbors" that emerge from these two works, this critical essay discusses the aporia that is situated between the two propositions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and "Man is a wolf to other men."

In language and experience, and in the aspect of the poetic speaker and the creative principle of poetry, there exists a sequential continuity from "Night of the Border" to "Youth's Ascension". In these two poems, the protagonist, a Korean student in Japan, survives the Kanto Earthquake and the slaughter of Koreans by their Japanese neighbors in its aftermath. The student ends up incarcerated, and once released from a concentration camp, he returns to Korea's northern countryside, where he meets a woman named 'Jae Gah-seung', a descendant of Yeojin people, to whom he tells his story in hopes of gaining her sympathy and ultimately her love. These two pieces tell the story of his failure to do gain either.

There are two distinct approaches to a continuous, developing theme in each of these respective works. "Night of the Border" is set against the winter of the northern countryside, and deals with the plights of the colonized and the descendant of Yeojin people. "Youth's Ascension" shows how the Koreans were designated as enemies or prisoners of war by the Japanese in wartime. In these two narrative threads, the undead, the barbarians, the living dead, and the living ghosts appear as existential expressions of the borders between death and life, law and outlaw, and human and inhuman. Both poems form a continuity in that their source of poetic imagination is located in 'the howl of the outsider.'

In particular, "Youth's Ascension" is the first work of Modern Korean Literature that directly addresses the experience of concentration/prison camps. In a long narrative form full of emotional diction, the process of how the poet is declared as the enemy of his neighbors, how humans are declared to be inhuman, and how a language descends into a howl

are detailed. The colonized is declared as ‘a barbarian,’ discriminated as a living ghost “whose murder would be a crime” in a concentration camp or in an emergency, and the poet’s language crosses the boundary from an anguished cry and descends closer to the howl of the dead. In this process of recording the language that were cried out by a living person on the border between the undead and/or the living dead, modern Korean poetry’s language was given birth.

The two works prove once more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howl” and “literature” in that it draws the fate of language and humanity in an emergency, such as in the example of the human caught between his neighbors and disasters. In the destruction of law and order, a man can be a wolf to other men, and “loving one’s neighbor as one loves oneself” must be understood not as a law or a religious precept but as the ultimate ethical imperative that also applies in the event of disasters and other calamities.

Keywords : Disasters, Neighbors, Kim Dong-hwan, “Night of the Border”, “Homeland’s Ascension”, continuity, Camp, Colony, The colonized, Howl, Living ghost, Living Dead, Undead, Love, Hostility, Root of Poetry

About the Martial Law : The Meaning of Recalling Great Kanto Earthquake

_ TOMIYAMA, Ichiro

A state that intervenes in civil affairs in the name of relief act is also a state that monitors and suppresses those who do not ask for help. The former amends the law, while the latter is the power that carries out those new laws outside its function. Is crisis not the situation when these powers materialize themselves? With this question in mind, I will try to analyze the ongoing crisis that was triggered by the natural disaster on March 11, together with so-called “Okinawa issue.” It is not to explain the similarities between Okinawa and Fukushima as “victims” of the state machinery of “Japan” in the way of understanding them. I have picked the “Okinawa issues” in order to think about how people can find a sense of attachment in one another in the “transformative present” (R. Solnit), which can be attained through the sensitive ability toward horrendous power of law, as well as in the future found within the anticipation of violence. In so doing,